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21)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21년 11월 30일(화) 배포	매 수	자료 총 4매

지난 여름휴가 최고 여행지는? 광역·'제주' 기초·'순천'

컨슈머인사이트 '2021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비교

- 제주도, 한적한 자연환경 힘입어 6년 연속 광역 1위
- 강원도 3년 연속 2위...부산·전남 오르고 경북은 하락
- 순천시, 기초단체 1위...작년 23위서 단숨에 선두로
- 바다·산 인접지 강세 속 작은 점수 차이로 순위 갈려

[그림1] 2021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광역 시도)

[Base : 여름휴가 기간 1박 이상 국내여행자]

사도	순위		점수(1,000점 만점)	작년대비(점)
	21년	작년 대비		
제주도	1	-	780	+12
강원도	2	-	739	-1
부산시	3	▲1	736	+14
전라남도	4	▲1	734	+15
경상북도	5	▽2	729	+5
경상남도	6	-	723	+9
서울시	7	▲2	720	+22
충청북도	8	▽1	711	-2
전라북도	9	▽1	708	-5
16 시도 평균			702	±7
충청남도	10	-	681	-2
울산시	11	▲3	676	+17
광주시	12	▽1	664	-7
경기도	13	▽1	662	-3
인천시	14	▲1	661	+10
대구시	15	▽2	659	-3
대전시	16	-	642	+24

Q. 여름휴가 목적으로 다녀오신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Q.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 여행지'에 대해 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Q. '주 여행지'을(를) 여름휴가 여행지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 사례수는 '21년 18,081명, '20년 16,035 명임

올해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에서 광역 시·도는 제주도가, 기초 시·군은 전남-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2위 강원도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6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순천시는 무려 22계단 상승하며 단번에 최고 여행지로 떠올랐다. 한적한 바다와 산, 계곡이 각광 받으면서 자연에서 휴식을 선호하는 언택트 여행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8081명에게 주 여행지는 어디였는지를 묻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합산해 '종합 만족도'를 구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를, 기초자치단체는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153개 시군을 비교 평가했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박 이상 머문 응답자가 60사례 이상인 5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 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www.bigdata-culture.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광역 시도 : 독보적 1위 제주도, 불안한 2위 강원도

16개 광역 시·도 종합만족도 평균은 702점(1000점 만점)으로 작년(695점)에 비해 7점 상승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700점대에 진입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제주도(780점)로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래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12점 올라 여행지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과 함께 만족도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여행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그림1].(참고. [여름휴가, 해외는 못 갔어도...국내여행 '코로나 전' 근접](#))

△강원도(739점)는 3년째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입지는 불안하다. 상위권 시도 중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하면서 선두와 격차가 커졌고 뒤로는 한 계단씩 상승한 △부산시(736점, 3위) △전라남도(734점, 4위)와 5점 차이 이내에서 쫓기는 모양새다.

△경상북도(729점)는 5위로 2계단 밀려났고 △경상남도(723점)는 6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시(720점)는 만족도가 큰 폭(22점)으로 상승하면서 2계단 오른 7위가 됐다.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성적은 여전히 저조했다. △대전 △대구 △인천 △광주는 순위가 약간 변동했을 뿐 작년에 이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울산은 점수가 크게 오르며 3계단 상승했으나 아직 평균점수에 많이 모자라는 11위에 그쳤다. 인구 밀도가 높고 실내 문화·위락시설이 많은 대도시에 대한 여행자들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초 시군 : 톱10 중 6곳은 10위권 밖에서 신규 진입

54개 시군 '종합 만족도' 평균은 721점으로, 작년(722점)과 거의 같았는데 △전남-순천시가 80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1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모든 시군 중 가장 큰 상승폭(85점)을 기록하며 중하위권(23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왔다. 국가정원과 습지, 해변 등 다양한 언택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림2].

△충북-단양군 △강원-영월군이 각각 769점으로 공동 2위였고 △경북-경주시(764점) △경남-남해군(762점) 순으로 5위권에 랭크됐다. 그 뒤로 △전남-담양군(6위) △강원-정선군(7위) △경남-산청군(8위) △강원-고성군 △경북-문경시(이상 공동 9위)가 10위권을 형성했다. 이 중 단양·영월·경주·담양을 제외한 6곳은 작년 10위권 밖에서 올해 톱10에 진입해 상위권 순위 변동이 심했는데 산청과 문경은 작년보다 각각 19계단, 31계단 경증 뛰어올랐다.

톱10에 오른 시군은 광역단체별로 강원도가 3곳, 전남·경남·경북이 각각 2곳, 충북이 1곳으로 강원도가 작년(4곳)보다 1곳 줄었지만 역시 가장 많았다.

1위 순천을 제외하면 중상위권 지자체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특징도 엿보인다. 특히 4~10위 시군은 불과 1, 2점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이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작은 점수 향상이 큰 폭의 순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위권(11~31위)에서는 △강원-인제군(19→11위) △전남-여수시(30→18위) △경북-영덕군(38→20위)의 순위 상승이 돋보였고 △경남-하동군(13위) △전남-신안군(17위)은 작년 순위 밖에서 20위 안에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표본 수가 충분치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남-고흥군(21위) △충북 괴산군(31위)도 뉴페이스로 등장했다. 반면 작년 최상위권이던 △전남-완도군(1→27위) △강원-평창군(2→16위) △전북-무주군(5→29위)은 크게 하락하며 중위권으로 내려앉았다.

[그림2] 2021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기초 시·군)

시·군-시도명	순위	작년 대비	점수 (1,000점 만점)	작년 대비 (점수)
순천시 전남	1	▲22	805	+85
단양군 충북	2	▲1	769	-1
영월군 강원	2	▲6	769	+10
경주시 경북	4	▲3	764	+1
남해군 경남	5	▲7	762	+15
담양군 전남	6	▲2	761	-2
정선군 강원	7	▲6	760	+15
산청군 경남	8	▲19	758	+42
고성군 강원	9	▲2	756	+4
문경시 경북	9	▲31	756	+71
인제군 강원	11	▲8	754	+27
강릉시 강원	11	▲4	754	+15
하동군 경남	13	NEW	753	+34
삼척시 강원	14	▽4	752	-3
통영시 경남	14	▽1	752	+11
평창군 강원	16	▽14	750	-25
신안군 전남	17	NEW	746	+16
여수시 전남	18	▲12	742	+31
양양군 강원	19	▽4	740	+1
영덕군 경북	20	▲18	737	+46
고흥군 전남	21	NEW	736	+17
거제시 경남	22	▲3	735	+17
안동시 경북	23	▽5	733	-5
제천시 충북	24	▽4	729	+3
속초시 강원	24	▽8	729	-9
울진군 경북	26	▽2	727	+9
완도군 전남	27	▽26	726	-53
목포시 전남	28	▲4	724	+16
무주군 전북	29	▽24	723	-44
횡성군 강원	30	▲7	722	+22
괴산군 충북	31	NEW	721	+69
54개 시·군 평균			721	-1
홍천군 강원	32	▽10	719	-1
동해시 강원	33	▽29	718	-50
춘천시 강원	34	▽8	716	-
해남군 전남	35	NEW	715	+32
전주시 전북	36	▽1	715	+8
밀양시 경남	37	▽9	715	+2
태안군 충남	38	▽7	710	-
진도군 전남	39	▽33	708	-55
부안군 전북	40	▽19	706	-19
군산시 전북	41	▽8	705	-4
양평군 경기	42	▽13	704	-8
가평군 경기	43	▽3	696	+9
포항시 경북	44	▽8	688	-16
청도군 경북	45	NEW	686	+3
보령시 충남	46	▽4	681	-2
사천시 경남	47	▽13	675	-32
원주시 강원	48	▽9	670	-20
포천시 경기	49	▽6	667	-9
파주시 경기	49	NEW	667	+1
서산시 충남	51	NEW	653	+10
창원시 경남	52	▽6	628	+17
청주시 충북	53	NEW	619	-60
안산시 경기	54	▽9	614	-38

Q. 여름휴가 목적으로 다녀오신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Q.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 여행지'에 대해 여행지로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Q. '주 여행지'을(를) 여름휴가 여행지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 사례수는 '21년 18,081명, '20년 16,035 명임
 * NEW는 20년에 사례수 60 미하로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아 순위 Tracking이 불가능함

전체 평균 점수 이상을 기록한 이들 31개 시군을 보면 대부분 △유명 관광지이거나 △관광자원으로 바다를 가진 곳(남해, 고성, 강릉 등) △과거 오지였을 정도로 한산한 곳(단양, 영월, 정선 등), 그리고 둘 이상의 자원을 갖춘 곳(순천, 경주)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은 작년에 이어 평균점수 이상을 기록한 시군이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조사의 특징을 종합하면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리면서 △지자체 간 부침(자리바꿈)이 심했고 △새로 순위권에 오른 지역이 많았다. 특히 △바다에 인접하거나 산간오지였던 곳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행지로 생소한 지역이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한적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추구하는 언택트 여행 트렌드가 이어지는 한편 숨은 명소를 찾으려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참고. [사람 피해 자연에서 휴식, 높아진 여름휴가 만족도](#)). 여행소비자들의 심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포착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만족도 높은 여행지로 거듭나는 지름길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여름휴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7056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김지윤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kimjy@consumerinsight.kr

02)6004-7610